

25년 1월 목회일정

5일(주일) 수료 및 진급식
12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20일(월) 두 교회 교역자 수련회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임시직분자 임명식 연기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주일 오전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 분기특별헌금 / 오늘 4/4분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교회달력 / 2025년 달력 탁상용(가정당 각 2부씩)
- 우리교회는 송구영신예배가 없습니다.
- 수료 및 진급식 / 다음 주일 오전예배 후에 있습니다
-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1월 예배봉사자 / 교회소식-고충석 봉헌-김낙형 안내-조안나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위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12월	25.01월
교회소식	고충석	고충석
봉 헌	강정희	김낙형
안 내	노주혜	조안나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종)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성연화교회(최지혁)
장학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4.12.29(제28-52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요1:14(교송)

인도자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회 중 :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축복의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12장(3-5)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신 5장(주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제 4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찬송15장(1-2)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요21:15-19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23편(1-2)

설교 ↓ 설교자

회복된사명

아멘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6장(2)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가315장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설교	양주동 목사 양주동 목사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샬] 인도 : 최성림 목사		
개 회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수, 10:30)		
* 예배예로의부름 ↑ 눅 2:14(교송)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수, 19시)		
인도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회 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 축 복 의 인 사 ↓ 벨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시편67편(1)						
신앙고백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고신총회)						
* 감 사 찬 송 ↑ 찬송19장(1-2)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신4:15-19						
교 리 문 답 교 독 ↓ 하이델베르그 96-98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06편(1-2, 10)						
설 교 ↓ 설교자						
말씀으로 섬기라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17장						
폐 회						
* 강 복 선 언 ↓ 설교자						

주간성경읽기		
주일	창 1-3	마 1
월	창 4-6	마 2
화	창 7-9	마 3
수	창 10-11	마 4
목	출 1-3	마 5:1-20
금	출 4-6	마 5:21-48
토	출 7-9	마 6:1-18

주일설교를 기억하며(회복된 사명)

- 1.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 2. 회복된 성도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를 수 있기를
- 3. 온전히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직분자들과 봉사를 위하여

- 1. 직분자들의 성김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 2. 성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직분자들이 성실하게 감찰할 수 있기를
- 3.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봉사하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정의실현을 위하여

- 1. 파괴된 성문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바로 잡히며, 성도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주도하도록
- 2. 인간의 이기심으로 발생하는 전쟁, 빈곤, 자연파괴 등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 3. 하루 속히 국정이 안정되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 1. 김해개혁장로교회와의 연합이 잘 이루어져서 온전한 교회일치와 연합의 모델이 되도록
- 2. 부산중부노회와 동래시찰에 속한 교회들이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 3.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방해하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악인들의 꾀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편향된 선지자, 제사장, 왕

더글라스 알드링크(북미 기독교 개혁 교단 은퇴 목사)

개혁정론에서 발췌

그리스도란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분은 기름부음 받으신 우리의 최고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다. 베드로전서 4:16에 따르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공유하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선지자요 제사장 이요 왕이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이를 묵상하고 그 진리를 타인에게 사랑을 담아 전한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준다. 왕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그분의 광대한 왕국에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한다.

문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삼중직을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주장하셨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사실 우리는 이 중에 어느 한 직분을 쉽게 강조하곤 한다. 다른 두 직분을 희생시키면서 말이다. 우리 모두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편향성은 개인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와 동일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신자들과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와는 다른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진 이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차이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 사람들은 "참된 교회"를 찾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 이 "참된 교회"란 물론, 대다수가 같은 편향성을 공유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순환은 그 다수가 죽어 없어질 때까지 혹은 통제력을 상실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름부음을 받은 이 세 가지 역할 혹은 직분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단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새 신자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어쩌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교목들의 보고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어쩌면 교리를 강조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많은 기독교 학교들에서 등록률이 감소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어쩌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증진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서로를 자유주의자, 중도파, 보수주의자 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면하자: 우리는 모두 편향되어 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의 방식(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공덕을 충분히 쌓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더 많은 공덕을 쌓아 하나님께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고안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98문답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그림이나 조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카톨릭교회는 평신도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신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2. 명령하신 일: 말씀으로 섬기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당신의 형상을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물론 첫 사람 아담은 경배를 받아야 할 우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첫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마귀의 형상을 닮게 되었습니다(요 8:44).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상은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고후 4:4, 골 1:15, 히 1:3).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요 1:1).

2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일을 금합니다. 형상으로 예배하는 행위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죄인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섬기는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예배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 14: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방법이 올고이 세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공덕이 쌓이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에만 의지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설교도 그렇습니다. 복음 설교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과 동시에 그분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의 방법을 사람이 만들었다면 철저히 배격해야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면 우리는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2월29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315장
성경봉독	요 21:15-19
설 교	회복된 사명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

1.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요 13:37).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합니다(마 26:35, 막 14:31). 식사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겔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세 번째 그들에게 오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졸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베드로는 그 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자기 고집과 열심을 따라서 삽니다. 하지만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세 번의 사랑 고백을 요구하여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통해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 베드로를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2.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통해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임”하신 겁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의 사역이 나옵니다.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게 하고, 설만한 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좋은 양식을 제공합니다. 또,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쳐서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주님은 이 목양의 사역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목양의 사역은 모든 직분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집사는 식탁과 재무의 일을 합니다. 성찬의 식탁에서 분별과 분잔을 합니다. 재무를 관리하며, 구제 사역을 합니다. 교회 안에 굶주

린 사람이 없도록 “먹이는 일”을 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는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칩니다. 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대적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이는 치리의 권한을 가진 장로를 생각나게 합니다. 장로는 주님의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말씀사역자)의 사역입니다. 혹 불균형하거나 잘못된 식사를 제공한다면 양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명은 가정의 직분자인 부모에게도 주어집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어린양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어그러진 생각들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먹으며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에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3.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고집을 의지할 때에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무언가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사역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노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팔을 벌린다”는 표현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남에 의해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를 끌고 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 팔 벌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끌려 다니게 됩니다. 어쩌면 비참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나의 힘과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님께 묶인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2월15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516장
성경봉독	신 4:15-19
설 교	말씀으로 섬기라
기 도	부모대독
주기도문	부 모
	다 같이

주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 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명이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2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 해주셨습니다.

1. 금지하신 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야웨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신 4:15).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임의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신 4:15, 출 20:4).

우상은 섬김의 대상을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금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송아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이죠. 자신들이 섬기기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요.